

2020 신년메세지 II

샬롬! 하나님이 움직이시다.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1. 샬롬

샬롬은 결국 승리를 이룬 삶을 말한다. 샬롬의 메시지, 이스라엘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doing 이 아니라 being의 메시지를 아는 것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움직이면 분쟁이 된다.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할 일은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 메시지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샬롬으로 온전히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샬롬이 있어야 온전히 완성된 한 몸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진리이며, 그것이 우리 삶에 실재가 된 것이 샬롬이다.

2. 진리는 이긴다.

[이사야 40: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상황과 환경이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 힘의 논리가 아니다. 진리가 갖고 있는 특성이다. 그래서 힘의 논리로 상대가 되지 않는 로마제국이 카타콤에 있는 기독교인에게 지는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자연의 법칙이다. 이 자연의 법칙을 이길 존재는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연의 법칙과 대조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는 이 말씀은 놀랍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상태가 영원의 정의이다. 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다. 마르고 시들면 근심이 생긴다. 걱정이 생긴다. 두려움이 생긴다. 마르고 시들기 때문에 생기는 걱정이 이 세상의 걱정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한다고 선포한다. 내가 오늘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오늘의 순간에서 '영원'을 품게 되었다는 말과 같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고 깊어진다. 영원 안에서 오늘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 상태가 현재에서 영원을 품고 나아가게 하는 진리의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그래서 붙잡아야 한다.

3. 영적 이해가 필요하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 확보된 영원성의 원리가 현재에 적용된 상태이다. 적용 가능한 것은 '원리'가 있다는 것이다. 원리를 이해한 상태가 지혜이다.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다. 지혜는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본다. 그래서 이해한다.

[요한복음 13: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무엇이 보이는가? 무엇을 보는냐가 중요하다. 영적이해의 핵심은 보여지는 것의 뒤를 보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이지만 그 뒤에 누가 있는가? 사탄이 있다. 영적이해는 아담과 하와의 문제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탄을 보는 것이다.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 장악할 수 있는 자를 보는 것이다. 눈으로는 가룟유다를 보지만, 영적이해로는 그 마음에 들어와 있는 사탄을 보는 것이다.

다른 차원의 눈을 떠야 한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 영적 사고방식이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 혈과 육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바울의 영적전쟁 원리를 명심하자. 이 말은 싸움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존재론적 선포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이 관점을 잃으면 싸움에 집중한다. 그리고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지만 고민한다.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혈과 육의 싸움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 끝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시편 73:16-19, 25]

16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5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끝에 가야 판결이 난다. 즉, 현재의 퍼즐만으로 속단하게 하는 것이 문제이다. 시편 73편 악인들의 흥왕함을 이해 못하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의 끝을 본다. 그리고 하늘 위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찬양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결국 끝에 가서 웃는 자가 이기는 자이다. 권투경기 판정의 심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5. 침착하라 - 기도로 내 육의 엔진을 제어하라.

설부르면 안 된다. 느헤미야를 보라. 현재의 공격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흐름에 집중해야 한다. 점 하나만을 보면 안 된다. 그 점에 연결된 흐름을 보아야 정확히 판세를 읽을 수 있다.

사울과 다윗을 볼 때 사울 하나의 점을 보면 다윗은 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점을 보았다. 그 선을 보았다. 그 선이 만드는 면을 보았고, 그 면이 만드는 공간을 보았다. 차원 전쟁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곳에서 점, 선, 면의 공간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예수님을 통해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더 하나님과 연합하라. 그리고 승리, 기쁨, 생명, 회복을 선포하라. 왕의 마인드로 판세를 읽으라.

내가 만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기회를 보라. 그때 움직이면 된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내면의 전쟁이다.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안에 세상의 파도에 격동하지 않는 살롬이 선포되어 있어야 한다. 살롬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살롬의 다스림이 있어야 한다. '살롬'을 유지하면 진짜 승리를 결국 얻는다. 할렐루야!! 살롬을 선포하자. 프로 액티브하게 움직이자. 리액티브가 아닌, 프로 액티브임을 명심하자.

“세상은 온통 격동할 일이다. 그러니 샬롬이 선포된 것이다. 이스라엘 1948년 이후 격동의 존재들이 함께 공존한다. 격동시키게 하는 자 한 명이 나서면 그들의 위험한 공존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할 하늘의 통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샬롬이다. 샬롬은 참는 것이 아니다. 내 차원과 힘을 넘어선 하늘의 통치와 능력, 권능, 권위로 임한 상태이다. 샬롬을 이루라. 그 샬롬을 통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일이 시작될 것이다. 아멘!

진짜 위기는 외부의 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적이 만드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다. 겉사람은 언제나 속사람의 지배 아래 있음을 명심하여 속사람을 샬롬으로 강건하게 하라.

“속사람을 샬롬으로 강건하게 하라” “샬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샬롬은 존재의 완성, 즉 하나님 형상의 완성이다” “샬롬의 왕 예수”